

오직 믿음으로

1. 세상이 흔들리고 - 사랑들은 변하 - 여도 나는 주를 섬 - 기리
 2. 믿음이 흔들리고 - 사랑들은 주를 떠 - 나도 나는 주를 섬 - 기리

주님의 사랑은 - 영원히 변하거 - 않네 나는 주를 신뢰 해
 주님의 나라는 - 영원히 쇠하거 - 않네 나는 주를 신뢰 해

오직 믿 음 으 로 - 믿 음 으 로 내 가 살 리 라
 오직 믿 음 으 로 - 믿 음 으 로 내 가 살 리 라 - -

오직 의 인 은 - 믿 음 으 로 말 미 양 아 살 리 라
 오직 의 인 은 - 믿 음 으 로 말 미 양 아 살 리 라 - -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6년 9월 4주

가정예배

2026

우리는
 생명을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 딤후 4:15-16 |

신앙고백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합니다]

기도

[함께 기도문을 읽으며 기도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추석 명절을 허락하셔서 반가운 친지들을 만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평소와 다른 일상 가운데 해이해졌던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서 스스로 단장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가족 모두가 잘 아는 다른 찬양을 해도 좋습니다]

· 오직 믿음으로 (QR 코드로 함께하세요)



말씀읽기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 하박국 2:1-4

1.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랴 말سم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2.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3.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4.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인도자가 내용을 읽습니다]

제목: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말씀듣기

하박국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나라를 신앙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힘썼던 요시아 왕이 갑자기 죽고 이후에 세워진 왕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 다. 나라 안에는 불의가 가득했습니다. 지도자들은 타락했고 백성들의 삶은 도탄에 빠졌으며 신앙은 무너져 우상숭배가 가득했습니다. 이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유다의 불의한 현실을 보고 가만히 계십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유다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하박국 선지자는 또다시 질문합니다. 어떻게 유다보다 더 악한 이방 민족인 바벨론을 사용하여 유다를 징벌하려고 하십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두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불의한 현실이 답답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오면 그들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둘째, 믿음으로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현재의 상황에 좌우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에게 주신 메시지는 모든 믿는 자들이 깊이 새겨야 할 교훈입니다. 이 시대는 하박국 때처럼 악인이 번성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핍박받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현실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에 불의한 자들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닥친 이 불의한 현실 앞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나누기

[아래의 질문으로 서로의 생각을 나눕니다]

- ① 불의한 현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 ②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렇게 하기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제목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한 명이 마무리 기도합니다]

- ① 불의한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게 하소서.
- ②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겨내는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하소서.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